

## Enactivism<sup>1)</sup>을 Enact하기: 번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배 문 정<sup>†</sup>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nactivism*은 체화된 인지의 여러 논의들 중 가장 전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접근이다 하지만 태동한 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포괄 범위와 성과에서 명실상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지금까지 이 이론이 국내 인지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낯설고 새로운 접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은 부분적으로는 *Enactivism*이 지니는 본래의 파격이나 심오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번역어의 혼란 또한 크게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Enactivism*의 철학적, 이론적 관점을 그 역사적 맥락과 개념적 지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발제(發製)’, ‘구성(構成)’, ‘행위화(行爲化)’ 등의 한국어 번역들이 그 철학적, 이론적 함축을 어떻게 포착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미 출간된 번역어 외에 ‘실행(實行)’과 수행(遂行/修行), 작동(作動)의 다른 번역어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시도는 철학적 난해함이나 번역어의 생소함이 야기한 심리적 장벽을 넘어 *Enactivism*이 국내 인지과학자들 사이에서 합당하게 주목 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더불어 마음에 대한 서구적 전통과 동양적 전통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바렐라(1946 - 2001)의 노력이 한국의 철학 전통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주제어 : Enactivism, Enaction, 체화된 인지, 바렐라, 발제, 구성, 행위, 실행, 수행, 작동, 번역

1) *Enaction*의 한국어 번역으로는 ‘발제 發製’, ‘구성 構成’, ‘행위화 行爲化’가 있으나, 이 용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동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영어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일상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소문자 ‘enact’로, 철학적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대문자에 이탤릭체 ‘*Enact*’로 표기한다.

† 교신저자: 배문정,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인지과학  
E-mail: mjbae64@gmail.com

### 들어가는 말 - 체화된 인지와 Enactivism

지난 20여년 사이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 논의를 둘러싸고 다양한 인지 개념들이 제안되었다. ‘체화된 embodied’, ‘embedded’<sup>2)</sup>, ‘enactive’, ‘확장된 extended’, ‘체험된 experienced’, ‘상황지위진 situated’, ‘분산된 distributed’, ‘역동적 dynamical’ 등의 수식어를 달고 등장한 인지 개념들은 ‘정보처리체계’ 또는 ‘계산론적 인지’로만 국한되어 사용되었던 인지 개념에 새로운 해석과 경험적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인지과학이 태동한 후 인지적 계산의 방식을 두고 ‘기호주의’와 ‘연결주의’가 주도권을 주고받긴 했지만, 큰 흐름에서는 ‘계산론적 인지 computational cognition’<sup>3)</sup>가 신성불가침의 표준적 패러다임이었던 점을 돌이켜 보면 최근의 제자백가(諸子百家)적 양상은 격세지감과 더불어 인지과학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온다.

이 새로운 접근들이 앞으로 어떻게 분화하고 수렴할 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지과학이 초기의 정립기를 지나 새로운 발전의 지평으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제 인지과학은 ‘인지’의 철학적·이론적 위상을 행동주의에의 반정립(antithesis)<sup>4)</sup>에서 찾고, ‘인지’의 조작적 정의를 계산기 은유<sup>5)</sup>에

2) embodied, embedded, enactive는 모두 체화된 인지의 주요 용어들이다. embodied는 체화(體化) 또는 신체화(身體化)라는 번역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embedded와 enactive는 아직 공론의 장에서 굳어진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embedded의 번역은 드물게 경제학에서 찾을 수 있는데,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번역한 홍기빈은 embedded를 ‘착근(着根)된’으로 번역하였다.

3) 계산론적 인지는 일반적으로 인지주의(cognitivism)로 불리어 왔다. 인지주의라는 용어는 행동주의(behaviorism)에 대립하는 패러다임으로, 이때 ‘인지’는 행동주의에서 블랙박스로 간주했던 내적이고 심적인 실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최근의 논의들은 ‘인지주의’에 반론을 제기하지만 ‘인지’라는 개념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지주의’ 보다는 그 대비가 보다 분명한 ‘계산론적 인지’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의 맥락에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4) 관찰할 수 없는 마음을 연구와 설명에서 배제했던 행동주의에 대한 반정립으로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마음이 존재하며, 그것이 바로 표상적이고 계산론적인 인지라는 주장.

5) 마음은 디지털 컴퓨터와 유사한 정보처리체계이며, 두뇌는 생물학적 컴퓨터라는 정의.

의존했던 협소한 방에서 걸어 나와, 명실상부 살아서 경험하는 ‘실체의 마음’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지평은 약속된 번역의 땅이 아니라 어떤 위험과 절망이 기다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땅이며, 이미 주어진 미래가 아니라 새로이 길을 내고(laying down a path in walking)<sup>6)</sup> 만들어가야 할 미래이다.

*Enactivism*은 ‘체화된 인지’의 이러한 실존적 상황을 가장 잘 체현하고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Enactivism*은 인지를 ‘의미의 세계를 생성하고 체화해가는 행위(Enaction)’로 이해하며, 계산론적 인지에서 터부의 대상으로 여겨온 문화적 실존적 경험을 인지과학이 탐구하고 설명해야 할 본연의 주제로 제기한다 따라서 한국의 인지과학자들이 앞으로 인지과학이 열어갈 새로운 지평을 가늠하고 그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단지 ‘체화 Embodiment’를 넘어 *Enactivism*의 철학적 입장과 방법론적 함의를 천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그 작업의 시작으로 *Enactivism*의 핵심 개념인 *Enaction*의 철학적 함의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발제 發製’, ‘구성 構成’, ‘행위화 行爲化’ 등의 한국어 번역어를 검토하는 일은 *Enaction*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통로로 작용할 것이다. 번역어를 문제 삼는 것은 번역이 주어진 언어 자료에서 심층의 의미를 탐색하고 생성하는 해석의 행위(*Enaction*)이며, 어떤 번역어가 선택되고 수용되는지는 원래 주어진 의미들 사이에 정확한 대응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실과 문화를 생성하고 실현하는 공동의 실천(*Co-Enaction*)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먼저 1) *Enactivism*의 철학적, 이론적 배경을 그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바렐라와 톰슨, 로쉬의 “체화된 마음 Embodied Mind”(1991)에 근거하여 *Enactivism*의 개념적 지형을 탐색한다. 이 이해에 근거하여, 2) 국내 번역어들이 *Enaction*의 철학적 함의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해석에 따른 번역이 한국어의 개념적 지형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살피고 대안적인 번역어들을 제안한다. 3) 마지막으로 *Enactivism*이 한국의 인지과학계에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Enaction*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

6) ‘Laying down a path in walking’이라는 표현은 진화와 발달에는 결정론적 경로도 최적의 경로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실천의 계기들이 그 경로를 만들어 간다는 바렐라의 생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로 바렐라의 저서와 논문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다(e.g. Varela 1987; Varela et al. 1991).

## *Enactivism*을 이해하기

### Enactivism의 짧고도 긴 역사

*Enactivism*은 1991년 바렐라와 톰슨, 로쉬가 함께 저술한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당시는 ‘체화된 마음’ 또는 ‘체화된 인지’라는 용어조차도 낯설게 들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핵심 개념인 ‘*Enactive*’이라는 용어는 ‘Embodied Mind’라는 제목의 배경으로 밀려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Enaction*’은 기껏해야 ‘Embodied Action’의 축약된 표현 정도로 이해되었으며, ‘*Enactive*’는 ‘Embodied’와 동일한 개념의 다른 기표로 받아들여졌다.

*Enactivism*이 체화된 인지의 모호한 아우라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고유한 사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체화된 인지의 여러 관점들이 ‘신체화embodiment’를 제각각 독특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해지면서부터였다. 이후 체화된 인지 논의는 단지 탈신체화된(disembodied) 인지에 대한 반정립로서가 아니라 계산론적 인지주의를 대체하려는 다양한 연구 패러다임들의 역동적인 경합의 장(field)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후 *Enactivism*은 체화된 인지가 아닌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인지과학적 철학 담론의 한 가운데 놓이기 시작했다).

7) 이러한 움직임은 2009년 “Topics in Cognitive Science”에서 체화된 인지 주장들의 철학적 쟁점들만을 추출하여 다룬 ‘Special Issue on Embodied Mind, Extended Mind, and Enactivism’을 출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Shapiro(2011)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체화된 인지의 다종다양한 흐름들이 애초에 철학적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표상과 계산에 기반한 인지주의 프로그램이 제반 경험연구의 발전에 제약과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문제제기가 그 출발점이었다. 따라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운 뒤 대나무처럼 나타난 무수한 체화된 인지의 주장들은 대부분 개별 연구영역에서 인지주의 프로그램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들의 집합이었다. 따라서 체화된 인지 논의는 인지주의에 대한 철학적 문제제기일 뿐 아니라 연구방법론까지 포괄하는 대안적 패러다임들의 출현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Topics in Cognitive Science”는 2012년 4권 4호에서 체화된 인지의 이 패러다임적 성격에 주목해 그동안 여러 영역에 걸쳐 진행된 체화된 인지의 이론적, 방법론적 성과를 개괄하는 기획호를 발간했다(Davis & Markman, 2012).

하지만 *Enactivism*은 단지 철학적 담론의 소재가 아니라 명실상부 하나의 연구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sup>8)</sup>. *Enactivism*이 출범한 후, 그 이론적 입장에 근거해 새로운 연구 분야와 방법론이 생겨났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연구 주제들도 등장했다. 예를 들어, 신경현상학이나 진화 로보틱스, 일인칭 방법 등과 같은 새로운 연구 분야와 방법들, 생명 현상과 인지를 연결하려는 형식 모형에 대한 이론 연구들, ‘참여적 의미생성 participatory sense-making’와 같은 새로운 연구주제들, 시각적 의식 경험에 대한 감각운동적 접근 등은 모두 *Enactivism*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연구 영역들이다(O'Regan & Noë, 2001; De Jaegher & Di Paolo, 2007; Rohde, 2010; Di Paolo & Thompson, 2014).

*Enactivism*이 독자적인 역사는 그리 길다할 수 없지만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세기 초중반 서구 지성사에 일어난 대부분의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 중 *Enactivism*의 주창자인 바렐라와 직접 연관된 부분만을 살펴보자. *Enactivism*이 바렐라와 톰슨, 로쉬의 ‘체화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간혹 *Enactivism*의 기원을 바렐라의 스승이자 동료였던 마뚜라나에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Reid, 2011), 이는 *Enactivism*이 마뚜라나와 바렐라가 함께 전개한 인지생물학(cognitive biology)과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자기생산) 개념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은 생명체를 자기 자신을 생산하는 체계로 정의하고 그 작동 기제를 모형화하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형식(formal) 이론이다(Maturana & Varela, 1980; Maturana & Varela, 1992; Varela, 1979). 이 이론은 생물체에 명시적으로 자기목적성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관점을 제공하였으며, 생물학 뿐 아니라 사회학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Luhman, 1995). 실제 *Enactivism*의 철학적 맥락을 풍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뚜라나와 바렐라가 공저한 ‘Autopoiesis and Cognition(1980)’, ‘The Tree of Knowledge 앞의 나무(1992)’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작 ‘체화된 마음’에는 오토포이에시스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으며 대신 자율성(autonomy)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사용되었다. 바렐라가 ‘체화된 마음’을 출간한 이후에도 꾸

---

8) *Enactivism*을 논할 때, 간혹 ‘확장된 인지 Extended Cognition’과 같은 순수한 담론적 접근과 대비하는 것은 *Enactivism*이 지니는 패러다임적 위상을 간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준히 오토포이에시스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McMullin & Varela, 1997), 그가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중심개념으로 오토포이에시스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후 ‘체화된 마음’의 공동저자이며 바렐라의 오랜 동료인 톰슨이 밝혔듯이 세포의 생명활동에 근거한 오토포이에시스 개념이 인간의 인지까지를 포괄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하고 제약이 많은 개념이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Thompson & Stapleton, 2009; Varela, 1996). 따라서 오토포이에시스와 인지생물학이 *Enactivism*의 전역사(prehistory)인 것은 분명하지만, *Enactivism* 자체의 기원은 ‘체화된 마음’이 출간된 1991년 즈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sup>9)</sup>.

하지만 *Enactivism* 전반에 흐르는 순환적 사고를 그 심층에서부터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토포이에시스 개념 자체보다는 ‘2차 사이버네틱스’라는 혁명적 사고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차 사이버네틱스’는 인간의 존재 기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들을 핵폭탄 급의 위력으로 발산한 집단적 사고실험이었다. 사이버네틱스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Hayles, 1999), 첫 번째 시기는 1943년부터 60년까지로 ‘1차 사이버네틱스’라고 부르는 관점들이 확립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이버네틱스의 정립기일 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틱스 등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추동한 가장 생산적이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1차 사이버네틱스’의 관심은 ‘인간, 동물, 기계를 포함하는 자율적인 체계’가 어떻게 ‘항상성(homeostasis)’을 가지는지에 있었고, 이 항상성을 보장하는 매카니즘으로 피드백회로가 제시되었다.

9) 바렐라는 1991년 ‘Embodied Mind’를 공동저술하기 전인 1980년대 말부터 ‘enactive’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이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이거나 프랑스어 출판본이라 필자로서는 그 정확한 사료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삶의 나무’의 후기에 “나는 ... 지식의 산출적인(bring forth)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적(enactiv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각주: F. Varela, “The Origin of Perception: A Cartography of Current Approaches,” in *Understanding Origins*, ed. F. Varela and J. P. Dupuy (Norwell, Mass.: Kluwer Associates, 1991). 이것의 더 완전한 프랑스어판은 *Connaitre: Les sciences cognitives* (Paris: Editions du Seuil, 1989).] ... 인지에 대한 제정적 견해가 인간의 경험이라는 더 폭넓은 주제와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하다면 직접적인 경험과 과학의 관계를 매우 상세하게 논의한 최근 책을 참고하라.[각주: F. Varela, E. Thompson, and E. Rosch,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ass.: MIT Press, 1991).]”(마뚜라나 & 바렐라, 삶의 나무, 갈무리 2007:287-288)라고 명시된 바에 따르면, 1989년 즈음부터 공식적으로 ‘enactive’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부터 1980년 사이에 진행된 두 번째 시기의 핵심 주제는 ‘순환성(circularity)’ 또는 ‘반성성(reflexivity)’이었다. 이 개념들은 1차 사이버네틱스의 산실이자 아고라였던 메이시회의(Macy Conference)에서 피드백회로의 특성으로 논의되었으나, 격렬한 충돌과 상처만 남기고 회의를 종결하게 만든 범인이었다. 세 번째 시기는 8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분기들을 포괄하며, 주로 자기조직화, 창발, 진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기를 막론하고 사이버네틱스의 중심 주제는 일관되게 자율성(autonomy)이었다.

*Enactivism*을 다루는 우리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2차와 3차 사이버네틱스인데, *Enactivism*은 2차 사이버네틱스의 문제의식을 3차의 사이버네틱스로 연결하고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여기서 잠시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자. 2차 사이버네틱스의 창시자로 불리는 폰 포어스터(Heinz von Foerster)는 1차 사이버네틱스는 ‘관찰된 체계 an observed system’에 대한 사이버네틱스이며, 2차 사이버네틱스는 ‘관찰하는 체계 an observing system’에 대한 사이버네틱스라고 정의했다. 실제 1차 사이버네틱스는 일반적인 과학자나 공학도의 관점에서 체계행위자와 환경을 설명하고 통제하는 데에 관심을 쏟았다. 이때 과학자나 공학자는 관찰되는 체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관찰자(또는 행위자)이며, 인지자와 창조자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반면 2차 사이버네틱스는 관찰자와 체계가 원천적으로 서로 분리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원칙적으로 체계 밖에 있는 관찰자는 관찰된 체계에 어떤 영향도 행사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학자는 체계를 설계하고, 과학자는 체계를 설명한다. 이 개입의 과정은 결국 체계를 통제하고 설명하는 설계도 속에 과학자나 공학자 자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딜레마를 안게 되는데, 이러한 자각은 결국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더 큰 체계도 또 다른 체계에 의해 설명되고 통제된다는 무한순환의 회로에 빠지게 된다. 예시의 서로를 그리고 있는 손의 그림이나 무한히 자신을 반사하는 마주보는 거울 등의 이미지가 이 악명 높은 순환성과 반성성의 이미지이다.

이 딜레마는 관찰되는 체계와 관찰하는 체계가 서로를 포함한다는 문제 뿐 아니라, 공학자와 과학자의 세계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낮과 밤이라는 문제도 제기한다. 즉 객관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설명되는 체계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되고, 체계를 온전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학자 자신은 설계 속에 포함되지 않

는 모형의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자든 공학자든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세계에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둘은 같은 세계에 머물 수도 없다. 어떤 누구도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공학자일 수 없다는 사실은 근원적으로 관찰자와 행위자 그리고 지각과 행위의 본질과 관련된다.

2차 사이버네틱스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행위자인 인간의 근본적 모순에 대한 자각을 불러 일으켰으며, 어떤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점도 이 근본적 순환성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불러왔다. *Enactivism*은 바로 이 문제의식을 심장 한 가운데에 품고 탄생한 철학적·이론적 관점이며 그 해법으로 주객이원론의 실천적(행위적) 극복을 제안한다. 하지만 2차 사이버네틱스의 이론가들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닌데, 2차 사이버네틱스가 제기한 문제의식의 귀결로 폰 글라스펠트(Ernst von Glasersfeld)는 관찰자의 내부에서 순환회로를 닫아버리는(즉, 외부를 포기해버리는) 구성주의 인식론을 주창한 반면,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은 통제와 설명의 불가능성을 역설하며 마음에 대한 생태주의적 관점을 제안했다. 따라서 *Enactivism*이 2차 사이버네틱스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어떤 결론이 아니라 인간 인식이 처한 근본조건에 대한 자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Enactivism*의 주장을 들여다 보자.

### Enactivism의 철학적 함축

‘enactive’를 인지의 맥락에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인지의 서사적(narrative) 접근(1991)’을 제안한 제롬 브루너(J. Bruner)였다. 그는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연구(1966)에서 지식 표상을 신체 동작에 기반한 ‘enactive’ 표상과 이미지에 기반한 영상적(iconic) 표상, 언어에 기반한 상징적(symbolic) 표상으로 구분하였다. enactive 표상은 아동에게서 가장 일찍 발달하는 표상 양식으로, 이 표상은 뼈아제의 감각운동 도식(sensorimotor schema)이나 인지심리학에서의 절차적 기억(procedural memory)과 유사한 개념이다. 즉 브루너에게서 enactive 표상은 이미지나 언어로부터 획득하는 지식이 아닌 신체 동작으로부터 습득되는 지식을 의미하고, 이 맥락에서 ‘enactive’는 ‘행위의’, ‘동작의’, 또는 ‘신체적’이라는 말로 무리 없이 이해될 수 있다.



브루너가 ‘신체 동작’라는 뜻으로 사용한 ‘enactive’가 표상의 한 하위 양식을 지칭하는 용어를 넘어 인지의 본질을 가리키는 철학적 개념으로 차용된 것은 바렐라에 의해서였다. 바렐라 등(1991)은 ‘Embodied Mind’의 1장에서 계산론적 인지과학이 인식의 객관과 주관의 나카롭게 분리하는 서구의 오랜 철학 전통(심신이원론)에 기초해있음을 지적하고, 인지과학 내에서 이 계산론적 패러다임에 저항하는 반객관주의적 연구들에 대한 새로운 이름으로 ‘enactive’를 제안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인지가 미리 주어진 세계에 대한 미리 주어진 마음의 표상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내 존재(a being in the world)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들의 역사에 기초해 있는, 마음과 세계의 ‘enactment(제정 또는 창출)’이라는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 ‘enactive’라는 용어를 새 이름으로 제안한다.”<sup>10)</sup> (바렐라 등 1991)

이 짧은 문장 안에는 ‘Enactive’를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핵심개념으로 채택한 이유 뿐 아니라, 서구의 과학 전통을 뒤흔드는 심대하게 전복적인 주장들이 담겨 있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 담긴 사유를 다소 길게 탐색해 보자

#### 미리 주어진 세계와 미리 주어진 마음은 없다

이 문장에는 첫째, 세계와 마음은 미리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즉 관찰자(또는 행위자)로부터 독립해 이미 주어져 있는 객관세계는 없으며, 동시에 멀찍이 떨어져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미 주어진 마음(선형적, 초월적 주관)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Enactivism*의 가장 중요한 존재론적 주장으로 객관적 실재론과 관념적 유아론 모두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그들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양 극단을 피해가는 ‘중간 길(entre deux)’이라는 개념을 제

---

10) 바렐라 등(1991)의 원서에 따르면, “We propose as a name the term *enactive* to emphasize the growing conviction that cognition is not the representation of a pregiven world by a pregiven mind but is rather the enactment of a world and a mind on the basis of a history of the variety of actions that a being in the world performs.” *The Embodied Mind*, 1991, 9. (이탤릭 강조는 영어원본)

안한다. 바렐라 등<sup>11)</sup>은 이 ‘중간 길’은 메를로-퐁티의 ‘entre deux’와 용수(龍樹)의 중도(中道)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물질의 세계도 관념적인 주관의 세계도 아닌 유체가 살아가는 세계, 또는 상호작용 영역이다. 이 중간 길의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주장들에서 살펴볼 것이다

### 인지는 표상이 아니다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주장은 인지는 세계의 표상(representation)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표상은 객관적 세계에 대한 마음 속의 대응이며 실재론과 관념론 둘 다를 떠받치는 인식론적 전제이다. 실재론자에게 표상은 자연의 거울로 세계의 그림으로 이해되며<sup>12)</sup>, 관념론자들에게 표상은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원재료로 인지자(cogito, knower)는 이 표상들을 객관세계에 투사한다. 따라서 실재론자에게든 관념론자에게든 표상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세계와 마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이며, 서로를 전제하거나 고려하지 않아도 각각의 의미를 충분히 보장하는 편리한 장치이다. *Enactivism*은 일관되게 반표상주의적(anti-representationalism) 태도를 견지하는데, 그 이유는 인지를 설명하는 데 표상이라는 설명 개념이 유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표상이 주객의 분리라는 존재론적 가정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는 인식론적 장치이기 때문이다<sup>13)</sup>. 이는 화폐의 유용성이 상품의 사용가치와 생산자의 노동 가치를 매개하는 기능을 넘어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과 유사하다.

11) 연도 표기 없는 ‘바렐라 등’은 모두 ‘바렐라 등(1991)’을 지칭한다.

12) 자연의 거울(Mirror of Nature)이라는 표현은 리처드 로티가 객관주의적 철학전통을 비판할 때 사용한 표현이며, 세계의 그림은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개념이다. 언어의 그림 이론에서 언어는 세계의 사물과 사건에 정확히 대응된다 따라서 사고언어로서의 표상(Fodor, 1975)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마음이 객관적 실재를 투명하게 인식하고 파악하게 매개인 것이다.

13) 간혹 *Enactivism*을 구성주의의 한 형태로 이해하는 맥락에서 표상주의와 양립가능하다는 주장이나(Shapiro, 2011), 체화된 인지의 관점을 취하더라도 표상은 설명개념으로 유용하다는 주장(Clark & Toribio, 1994)이 있다. 하지만 *Enactivism*은 일관되게 반표상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구성적 설명개념으로서의 표상의 유용성과 무관하게 존재론적 관점으로부터 제기된 근본적인 주장이다.

### 인지는 세계와 마음의 Enactment이다

세 번째 주장은 인지가 세계에 대한 마음의 표상이 아니라 세계와 마음의 *Enactment*라는 주장이다<sup>14)</sup>. 바렐라 등에서 ‘*Enactment*’는 간혹 ‘the enactment or bringing forth’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bringing forth’는 생성, 산출, 창출, 제작의 의미이다<sup>15)</sup>. 따라서 ‘인지는 세계와 마음의 제정 또는 창출’이라는 주장이다. 바렐라 등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은 ‘*cognition as enactment*’, ‘*cognition as embodied action*’이다. 이 표현들을 모두 종합하면, 인지는 유기체의 체화된 행위이며, 이 체화된 행위가 세계와 마음을 생성하고 창출한다는 뜻이 된다

이 주장을 첫 번째, 두 번째 주장과 병치하면, ‘인지는 미리 주어진 객관 세계에 대한 선험적 주체의 표상적 인식이 아니라, 신체를 가진 세계 내 존재가 세계와 마음을 창출(또는 생성)하는 행위이다’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인지는 행위’라는 주장과 ‘인지는 세계와 마음의 창출 또는 생성’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 주장은 첫 번째 주장이 성립하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인지가 표상이 아니라 행위라는 말은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 제기된 관찰자/행위자 문제를 다시 떠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세계를 설명하는 관찰자는 표상을 통해 세계를 받아들이거나, 내적 세계에서 구성한 표상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세계를 인식하지만 결코 행위하지 않는 관찰자로서의 인지자(*cogito*)의 가장 이상적인 표본이 바로 계산하는 기계로서의 인지체계다. 설(John Searle)의 ‘중국어 방’은 중국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이해한다고 주장될 수

14) *Enactivism*에서 *Enaction*과 *Enactment*는 사뭇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Enaction*이 행위의 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Enactment*는 행위의 결과로 생성되어진 정태적인 어떤 것의 낱양상을 가진다. 이는 스피노자의 능산적(能産的) 자연과 소산적(所産的) 자연에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5) 현대 철학에서 ‘bringing forth’가 등장하는 또 다른 맥락은 하이데거로, 그는 기술(*technology*)의 본질을 ‘*Hervorbringen*(창출, 생성)’ 또는 ‘*Veranlassen*(give rise to)’으로 표현하고(김향선, 2000), 이 개념을 그리스어 포이에시스(*poiesis*)에 연결시킨다. 이 맥락에서 ‘bringing forth’가 마뚜라나와 바렐라의 오토포이에시스와 은유적인 연관을 가진다는 짐작도 충분히 가능하다.

는 있지만 결코 중국어를 한다고(또는 사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가 표상이 아니라 행위라는 선언은 계산론적 인지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며, 세계 밖에 선 관찰자를 세계 안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하지만 세계 안에서 행위하는 신체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지만은 아닌데 그것은 바로 파블로프의 개와 스키너의 쥐다. 인지가 *Enaction*이라는 주장은 아무리 거창하게 표현해도 결국 행동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설명하는 관찰자와 창출하는(bring forth) 행위자가 한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다는 2차 사이버네틱스의 결론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렐라 등은 메를로-퐁티의 ‘해머와 건반’의 예를 통해, 행동주의의 행동(behavior)과 *Enactivism*의 행위(*Enaction*)가 어떻게 다른지를 예화한다.

메를로-퐁티는 초기 저작인 ‘행동의 구조’(1942)에서 ‘유기체는 해머가 두드리는 대로 소리를 내는 건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며,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해머에 자신을 가져다 대는 건반과도 같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유기체의 행동은 자극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스스로 자극을 선택하고 만들어 내는 행위라는 것이다.

... 또한 행위는 모든 자극의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자극의 형태는 유기체 자체에 의해 창조된다 ... 그러나 물리적 세계에서 자신이 민감하게 반응할 자극을 선택하는 것은 유기체 자신이다. “환경(*Umwelt*)은 유기체의 존재 또는 실행(actualization)을 통해 세계로부터 창발된다”. (메를로-퐁티 ‘행동의 구조’를 바렐라 등에서 재인용. 이탤릭은 바렐라 등 174)

유기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서의 행위(*Enaction*)는 첫째,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reaction)으로서의 행동(behavior)과 구분된다. 둘째, 행동주의에서 ‘행동’의 가치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보장되는 반면 *Enaction*의 가치는 세계와 마음을 제작 또는 창출(bring forth)하는 능동적 행위라는 데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행동주의의 행동은 원칙적으로 지각 경험에 독립적이고 무관한 행동인 반면<sup>6)</sup>, *Enaction*은 그 자체로 지각 경험에 의해

16)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은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고 그 자극이 어떤 지각 경험을 유

안내되고, 지각경험을 창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Enactivism*에서 지각과 행위는 서로 분리불가능하고, 지각이 곧 행위이며 행위가 곧 지각인 순환적 관계를 가진다

허친스(Edwin Hutchins)는 ‘Cognition in the wild’(1995)에서 “*Enaction*은 유기체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창조한다는 생각이다 유기체는 환경으로부터 입력을 받는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자신이 행동하는 방식에 의해 형성되는 환경 속에 있는 행위자다”<sup>17)</sup>라고 표현했다. *Enactivism*은 행동주의의 기계적인 행동을 능동적이고 체험적인(*experiential*) 행위로 전환시킬 뿐 아니라 계산론적 인지에서 단지 수동적인 입력이거나 표상으로 구성되었던 지각을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행위로 전환시킨다

지각에 대한 이런 능동적인 관점은 비단 메를로퐁티나 바렐라 등의 주장만은 아니다. 지각이 행위를 위해 존재한다는 표현은 베르그손의 ‘물질과 기억’ 첫 장에서 ‘지각은 잠재적 행동’이라는 표현에도 등장하며, 생태주의 심리학을 주창한 깁슨의 지각이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깁슨에게서 지각은 탐색 행위(*explorative action*)이며, 지각자는 행위를 통해 환경 속의 불변소(*invariant*)와 어포던스(행위가능성 *affordance*)를 지각한다(J. J. Gibson 1979). 이처럼 지각을 행위로 보는 관점에서는 안다는 것은 머리 속에 지식을 쌓아서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내에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며, 나아가 세계 내의 관찰자는 오직 행위를 통해서만 관찰자일 수 있다<sup>18)</sup>.

### 인지는 세계 내 존재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들의 역사에 기초해있다

‘(인지는) 세계 내 존재(a being in the world)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들의 역사에 기초한 세계와 마음의 *Enactment*’이라는 표현에서 ‘세계 내’와 ‘다양한 행위들의 역사’를 인지과학의 일반적 표현으로 다시 쓰면 인지는 상황 또는 맥락(context) 안에

---

발했는지는 블랙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과학적 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17) “*Enaction* is the idea that organisms create their own experience through their actions. Organisms are not passive receivers of input from the environment, but are actors in the environment such that what they experience is shaped by how they act.” Edwin Hutchins (1995)

18) 오직 행위를 통해서만 관찰할 수 있는 세계 내 존재의 관찰은 객관적 관찰과 대비하여 참여적 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로 명명할 수 있다.

있다는 것이다. 이때 맥락은 진화적, 문화적, 실존적 층위를 가지고 인지는 진화적, 문화적, 실존적 맥락 속에 상황지위져(situated) 있다. *Enactivism*에서 이 맥락 또는 상황은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 모두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맥락적인 세계는 그 정의상 유기체의 이전 행위의 결과로 *Enact*된 것이고, 동시에 유기체는 자신이 *Enact*한 세계의 제약 속에 살아간다.

바렐라 등에서는 이러한 세계의 측면은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영역’으로 정의된다. 상호작용 영역은 환경과 유기체가 진화와 역사적 과정 동안 함께 생성한(제작한) 구조적 결속(structural coupling)의 장이며, 서로가 서로를 규정(mutual specification)하고, 공동결정하는(co-determinate) 행위의 영역이다. 이 영역은 주관으로부터 분리된 객관적 실재도, 그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세계를 조망하거나 투사하는 인지자의 관념 세계도 아니며, 그 사이의 중간 길(entre deux, middle way, 中道)에 해당한다.

이 중간 길은 유기체의 행위에 의해 생성되고 또 유기체의 행위를 제약하는 살아 있는 ‘의미의 세계’라는 측면에서, 현상학자들의 표현을 빌면 생활세계이고, 김슨의 표현을 빌면 생태적 서식지(niche)이고, 또 폰 웨스켈(von Uexküll)의 표현을 빌면 ‘Umwelt’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세계가 공간이 아니라 길로 형상화되는 이유는 그 세계가 고정된 세계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펼쳐지고 만들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Enactive*를 새로운 인지과학의 이름으로 제안한 이유를 담은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1) 주객 이원론에 대한 반대, 2) 분리된 주관과 객관을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표상에 대한 반대, 3) 인지는 표상이 아니라 세계와 자신의 의미를 생성하는 체화된 행위라는 주장, 4) 새로운 인지과학에서의 세계는 그 정의에서부터 ‘유기체 자신을 포함하고 또 유기체에 의해 만들어진 또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결정의 행위영역’이라는 주장들이 압축적으로 들어있다. 하지만 아직 검토하지 않은 문제는 ‘세계 내 존재(a being in the world)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들의 역사**’가 표상으로 내재화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세계 내 존재(a being in the world)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들의 역사**’에 어떻게 기초할 수 있는가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체화(embodiment)의 의미가 등장한다.

### 인지는 체화된 행위(embodied action)이다

우리는 앞에서 *Enactivism*에서 인지와 행위, 그리고 세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수긍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계통발생이든 개체발생이든 살아온 경험이 표상으로 내재화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어떻게 역사에 의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계산론적 인지에서 표상은 세계에 대한 실재적 인식이나 구성적 인식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경험을 현재에 되살려서 사용하는 기억의 형식이라는 맥락에서도 중요하다 사피로(2011)는 표상의 필요성이 온라인 인지를 설명하는 맥락에서는 쉽게 제거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인지에서는 표상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한다. 이는 지각이나 행위의 하위 인지에서는 표상이 필요 없지만 언어적 추론이나 고차적 인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클랙(1994)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점에서 *Enactivism*에서 체화(embodiment)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렐라 등은 메를로-퐁티를 언급하며, 신체화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한 편으로는 살아온 경험의 구조로서의 신체와 또 한 편으로는 인지적 기체의 맥락과 장소로서의 신체이다<sup>19)</sup>. 즉 체화는 진화와 문화적 역사 그리고 실존적 역사를 통해 형성된 유기체의 감각운동적 신체 그 자체이며 동시에 유기체가 *Enact*한 맥락과 환경으로서의 신체이다. 이 두 신체는 상호결정의 역사를 통해 공진화(co-evolve)하고 공발달(co-develop)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체화(reembodying)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내 존재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들의 역사는 세계와 세계 내 존재의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는 신체들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유기체는 표상이 아니라 신체로 살아가며, 세계와 우리는 모두 살아온(lived), 그리고 살아가는(living) 신체들이다.

### Enactivism의 인지과학적 함축

이제 우리는 *Enaction*의 의미와 *Enactivism*의 철학적 함축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

19) For Merleau-Ponty, as for us, embodiment has this double sense: it encompasses both the body as a lived, experiential structure and the body as the context or milieu of cognitive mechanisms. (xvi)

연었다 할 수 있다. 이제 *Enactivism*에서 제시된 개념들에 기초하여, *Enactivism*의 인지 이론이 계산론적 인지이론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Enactivism*을 단지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인지의 계산론적 접근에서 핵심 개념이 정보, 계산, 표상이라면, *Enactivism*에서 핵심 개념들은 의미(meaning 또는 sense), *Enaction*, 체화(embodiment)이다. 다소 단순한 방식이지만 이해를 위해 각각의 개념들을 도식적으로 대응시켜 보자 먼저 계산론에서 정보의 개념에 상응하는 *Enactivism*의 개념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계산론적 인지체계를 흔히 정보처리체계라고 부르는 데서, 정보가 계산론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정보’라는 개념은 클로드 섀넌의 정보이론(1948)에서 빌어온 것이다. 정보이론에서는 ‘정보’를 양으로 간주하는데, 정보가 양화되기 위해서는 의미와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정보의 이런 탈맥락적인 특성은 정보를 기계와 인간, 동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으로 만든다. 인지체계는 객관적 세계에서 출발하여 감각수용기에 도착한 정보를 부호화하고 이 기호들을 대상으로 의미와 맥락을 복원하는 계산을 수행한다.

하지만 *Enactivism*에서 정보는 단지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배경일 뿐 중요한 것은 의미이다. 이때 의미는 두개골에 의해 경계 지워진 인지체계 안에서 표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작용 영역 안에서 창발한다. 유기체는 그 영역 안에서 의미를 탐색하고, 동시에 행위를 통해 의미를 *Enact*(창출, 생성)한다. 따라서 계산론의 인지체계가 정보처리체계라면, *Enactivism*의 인지체계는 의미생성체계(sense-making system)라 할 수 있다<sup>20</sup>.

둘째, 계산론에서 표상에 상응하는 *Enactivism*의 개념은 체화이다. 계산론에서 표상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또는 그 자체로 의미에 상응하는 정보로, 세계에 대한 심적 모델(mental model)이다. 표상은 정보로부터 객관 세계의 대상이나 사건을 복원하거나, 또는 지식에 근거하여 세계를 구성하고 투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Enactivism*에서는 애초에 객관과 주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

20) 의미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정보개념은 김순의 생태주의 심리학에서도 발견된다. 김순에게서 정보는 환경에 존재하는 것이고 유기체에게 행위가능생어포던스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적이다.



지각과 행위에 의해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그 두 세계 사이에 중간 길로서 의미의 세계를 가정한다. 따라서 *Enactivism*에서는 객관과 주관을 연결하거나, 정보로부터 의미를 복원하는 역할의 구성개념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살아온 경험의 구조 또는 지식으로서의 표상이라는 측면은 바로 살아온 행위의 역사가 중층적으로 구조화된 신체로 대체된다. 이때 신체는 유기체의 감각운동적 신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환경의 신체까지를 포괄한다. 유기체는 환경과 함께 살아온 역사를 의미의 세계에 체화하며 살아가는 것이다<sup>21)</sup>.

셋째, 계산론에서 계산에 상응하는 *Enactivism*의 개념은 *Enaction*이다. 계산론적 인지체계가 ‘정보를 표상으로 전환하고 계산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답 또는 최적의 해법을 출력하는 장치’로 정의될 수 있다면, *Enactivism*의 인지체계는 ‘세계 내에서 행위를 통해 의미를 탐색하고 만들어 가는 살아있는 신체로 정의된다.

이러한 구분은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으로서의 계산론과 *Enactivism*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이런 개념적 대비가 아니라 인지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흐름의 구조이다. 계산론에서 인지적 과정은 정보흐름도(information flow)로 도식화된다. 감각 채널에 주어진 입력에서 시작해 출력 표상으로 끝나는 이 정보흐름도는 각각의 정보처리 단계를 가지고(box and arrow), 시작과 끝이 계산 단계들에 의해 원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과정이다<sup>22)</sup>. 반면 *Enactivism*에서 인지과정은 단 한 순간의 단절도 없는 중층적인 순환의 과정으로 감각운동적 순환 또는 지각과 행위의 순환으로 이루어진다 이 지각과 행위의 흐름도는 지각과 행위가 시작도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있는 관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바렐라 등이 *Enactive* 인지과학을 정식화한 부분을 통해, *Enactivism*이 인지과학자들에게 제시하는 연구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바렐라 등은 *Enactivism*을 정식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을 던진다(Varela 등, p. 206).

21) 유기체와 환경의 동시적인 체화는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되고 발견될 수 있다 생태학적 층위에서는 서식지의 구조(예, 비버의 댐), 문화적 층위에서는 관습의 구조 실존적 층위에서는 습관의 구조 등이 포함된다

22) 헐리(Susan Hurley, 2008)는 계산론의 이런 측면을 인지가 지각과 행동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보는 샌드위치 관점이라고 명명했다

질문 1: 인지란 무엇인가?

대 답: *Enaction*: 세계를 산출(생성)하는 구조적 결합의 역사이다.

질문 2: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대 답: 상호 연결된 감각운동적 하위 네트워크들이 중층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한다.

질문 3: 나는 인지체계가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대 답: 그것이 지금 지속하고 있는 세계의 부분이 되거나(모든 종들의 어린 개체가 그러하듯) 새로운 세계를 형성할(진화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때이다.

이 정식화에는 인지과학의 연구 목적과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인지는 더 이상 실험실에서 고안된 추상적인 과제를 계산하는 능력과 관련되지 않는다. 인지는 유기체가 속한 생태적, 사회적, 실존적 맥락(구조적 결합의 역사) 속에서(생태적, 사회적, 실존적) 체계에 참여하고, 그 체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따라서 인지과학자들의 과제는 생태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타당한(valid) 주제들을 연구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까지 인지과학에서 다룬 대부분의 주제들과 함께 이제까지 인지과학에서 터부시해온 주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험난한 지형에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동하는 능력, 사회정치적 행위능력, 실존적 고통과 치유의 능력 등 삶의 의미와 관련된 모든 주제들이 포함된다.

오레건(O'Regan)은 “경험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어떤 것이다”고 말했다(Bishop & Nasuto, 2005). 마찬가지로 인지는 컴퓨터(사람이든 기계든)가 계산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유기체(박테리아든 사람이든)가 살아가는 어떤 것이다.

### Enactivism을 Enact하기

우리는 앞선 논의들을 통해 *Enactivism*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얻었다할 수 있

---

23) 살아온 신체는 바로 이런 감각운동적 순환회로들이 중층적으로 연결된 신체이다

다. 이제 본격적으로 ‘Enactivism을 Enact하기’라는 논문의 본래 주제로 들어가자. 본 논문의 제목은 *Enactivism*이 한국의 학문지형에서 단지 담론의 소재로 소비되는 것을 지양하고 인지과학의 제반 영역에서 명실상부한 연구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 즉 인지과학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영역을 생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실천의 시작으로 번역의 문제를 채택한 이유는 첫째 *Enaction*의 번역어들을 검토하고 고민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Enactivism*에 대한 보다 깊고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이고, 둘째 과학의 발전은 맥락에서 벗어난 과학자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상식을 체화한 과학자들의 언어적 소통과 행위 규범(에도) 의존하기 때문이며, 셋째, 한국의 근대 학문은 ‘번역된 학문’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번역어에 크게 의존해 왔지만, 정작 번역의 문제에 대해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는 반성 때문이다<sup>24)</sup>. 그리고 무엇보다 *Enactivism*이 한국어로 소개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Enaction*과 *Enactivism*에 대한 공인된 번역어가 없다는 사실이 한국에서 *Enactivism*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인지과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다양한 직관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번역어를 공동의 실천(*Co-Enaction*)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 하지만 어떤 번역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어떤 번역어가 원어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번역어가 한국어에 가장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골라 따지는 방식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어떤 번역어가 살아남아 원어의 ‘지속하는 삶<sup>25)</sup>’을 더 새롭게 할지는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 공동체의 공동의 합의가 필요한 일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번역은 하나의 해석 행위로 제각각 나름의 의미 세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실제 *Enaction*

24) 한국 학계의 이런 태도는 서구의 근대 개념들을 번역하면서 일본의 학자들이 보여준 지 난한 논쟁과 성찰의 역사와 크게 대비되는데, 서구의 낯선 개념을 치열한 고민 없이 일본 번역어를 통해 그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 학문 역사가 오늘날 한국의 학문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25)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번역가의 과제’에서 훌륭한 번역이란 원문의 ‘지속하는 삶’이 번역어를 통해 다시 새로워지고 또 다시 포괄적으로 그 삶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벤야민, 1983).

에 대한 번역어로 제시된 ‘발제’, ‘구성’, ‘행위화’ 등의 번역어는 모두 *Enactivism*에 대한 고민과 탐색의 결과인 만큼, 우리는 그 해석의 과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과정을 쫓아가는 길에서 *Enactivism*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 Enaction의 은유적 해석

앞서 *Enaction*이 어떤 철학적, 이론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개념과 어휘는 다른 것이라, 하나의 개념 또는 개념의 연관들을 단어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듣는 이들의 언어적 직관을 전제로 하고 그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렐라는 그리스어로 ‘poiesis’, 독일어로 ‘Hervorbringen’로 표현되는 복잡한 개념을 영어 *Enaction*으로 표현했을 때에는 그 단어가 영어 사용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을 전달할 지를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다. 체화된 인지의 또 다른 주창자인 레이코프(Lakoff)와 존슨(Johnson)에 따르면, 추상적인 개념은 신체적 체험에 근거한 일상적, 영상적 도식이 은유적으로 확장된 것이다(1980, 1999). 따라서 추상 개념인 *Enaction*이 일상언어인 ‘enact’, ‘enactment’로 부터 어떻게 은유적으로 해석되고 확장되었을지를 고려하는 것은 이 개념의 또 다른 어휘인 한국어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enact’의 의미를 어원학적으로 살펴보면, ‘make, put in’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접두어 ‘en-’에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act’가 결합되어 ‘하게 만들다 act out; to make into an act or statute’는 뜻을 가진다<sup>26)</sup>. 이 단어의 일상적 용례는 ‘1. 법을 제정하다 to establish by law; ordain or decree’이며, ‘2. 연기를 하다 to represent or perform in or as if in a play; to act out’이다. 이런 용례를 가지는 ‘enact’가 떠올리는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영상 도식(image schema)은 아마도 영화 촬영장의 모습일 것이다. 촬영기를 든 영화감독이 정지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연기자들(actors)에게 팔을 휘두르며 “Action!”이라고 외치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이때 영화감독은 영화 속의 세계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창출하는(bring forth) 세계의 입법자 또

26)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www.etymonline.com/index.php?allowed\\_in\\_frame=0&search=enact&searchmode=none](http://www.etymonline.com/index.php?allowed_in_frame=0&search=enact&searchmode=none)

는 창조자로 비춰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Enaction*은 세계를 창출하고 생성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Enaction*은 영화감독만의 몫은 아닌데, 연기자들 또한 감독에 의해 창출된 세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생성하고 있다. 연기자들의 연기 행위는 그 자체로 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연기의 행위를 통해 죽어있던 세계에 소리와 색을 입히고, 그 세계를 살아있게 만든다.

우리는 이 가상적인 장면을 통해 일반적으로 *Enaction*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불러오는 두 가지 해석을 마주하게 된다. 하나는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권력의 행위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 안에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의미생성의 행위이다. 영화 촬영장의 장면에서 영화감독은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권력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때의 *Enaction*은 세계를 제정한다는 의미에 가까운 구성(構成), 즉 Construction으로서의 *Enaction*이다. 반면 영화 속 세계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화배우들의 행위는 세계 내에서 그 세계를 이루어간다는 의미에 가까운 구성(構成), 즉 Constitution이다<sup>27)</sup>. *Enaction*에 대한 이러한 은유적인 그림을 배경에 두고 국내 번역어 각각의 해석을 살펴보자.

#### Enaction의 한국어 번역들: 발제, 구성, 행위

바렐라 등의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는 1997년 석봉래에 의해 “인지과학의 철학적 이해”로 번역 출간되었다.<sup>28)</sup> 석봉래는 이 책에서 *Enactivism*을 발제주의(發製主義)로 번역하였는데, 그동안 인지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번역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의 논의에서 그저 ‘체화된 인지’로 지칭되어 왔다<sup>29)</sup>. 그 이유는 국내에 체화된 인지의 다양한 논의들이 충분히 소개되지 않아

27) construction과 constitution의 차이에 대해서는 Aaron Ben-Zeev(1995) 참조.

28) 석봉래가 번역서에서 바렐라 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체화된 마음’과 ‘인간 경험’ 모두를 생략하고, 뜬금없이 ‘인지과학의 철학적 이해’로 제목을 단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석봉래는 이 책이 인지과학이 기반하고 또 기반할 수 있는 인식론과 존재론의 철학적 담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듯하지만 이런 변형은 책의 주제를 일반적인 심리철학의 문제 또는 대륙철학과 불교철학의 인지과학적 적용 정도로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문제를 낳았다.

29) embodied가 ‘체화’로 번역되어 정착된 데에는 이정모의 기여가 크다. 이정모는 여러 매

여러 접근들 사이를 상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발제주의라는 신조어가 한국인의 언어적 직관에 낯설고 생경한 느낌을 불러왔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후 박충식은 ‘구성적 인공지능(2004)’이라는 논문에서, 박충식과 유권중은 ‘새로운 도덕 심성모델(2004)’이라는 논문에서 ‘발제(發製)’가 아닌 ‘구성(構成)’이라는 번역어를 택했는데, 바렐라의 ‘윤리적 노하우 Ethical Know-How’의 번역본 후기에서 박충식은 *Enaction*을 구성(construction)으로 번역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바렐라의 구성(enaction)이라는 단어가 구성주의의 구성(construction)과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는 완전히 동일할 뿐 아니라 바렐라의 구성에 있어서 ‘행동에 의하여’라는 뜻은 구성의 모든 의미는 아니지만 선언적인 의미를 드러내준다.”(박충식, 2009, p. 130). 과연 바렐라의 *Enaction*이 ‘구성주의’의 ‘구성’과 대체 가능한 의미인지는 곧 살펴볼 것이다.

*Enaction*의 또 다른 번역어는 ‘행위화(行爲化)’인데, 이 번역어는 불교철학자 박인성이 번역한 ‘현상학적 마음(2013)’에서 등장한다. 이 번역어는 ‘발제’나 ‘구성’같은 의역이 아니라 원어 *Enaction*의 사전적 의미와 형태소까지 그대로 유지한 직역에 해당한다. 이제 이 각각의 단어들이 *Enaction*의 개념적 지층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Enact*(의미 생성)했는지 살펴보자.

### Enaction과 발제(發製)

석봉래는 *Enaction*과 *Enactment*를 ‘발제(發製)’로 번역하였다. 그는 ‘인지과학의 철학적 이해’ 역자 머리글에서 ‘발제란 원래 무엇을(예를 들어 법안 같은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발제(發製)’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신조어이다.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발제’은 발제(發題), 발제(袪除), 발제(髮際)의 세 단어인데, 뒤의 두 단어는 거의 사어에 가깝기 때문에

---

체들을 통해 인지과학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체화된 인지’를 소개해왔다. 하지만 그의 논문들에서도 *enactive*나 *embedded*에 대한 번역어는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그가 체화된 인지의 여러 접근들을 세밀하고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총체적인 흐름으로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상식에 굳어진 단어 ‘발제’는 발제(發題)이다. 그가 이 발제(發製)를 진실로 한국어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두 한자를 조합하면 쉽게 ‘발의하고 제정하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 내막은 알 수 없다. 석봉래가 이 정체불명의 신조어를 사용한 이후 이인식이 해제를 달아 다시 출간한 “몸의 인지과학”에서도 *Enaction*은 여전히 ‘발제’로 번역되었고, 번역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가 일상어인 *enact*를 철학적 개념으로, 또 그 철학적 개념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충분히 고심한 후 ‘발제(發製)’라는 신조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의 고심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되는 바가 있다. 그의 번역의 취지를 미루어 짐작하자면, *Enaction*에 발(發)이라는 한자를 사용한 것은 發生(birth), 發達(development), 創發(emergence) 등의 단어의 의미에서 ‘생겨나다’의 어조를 은유적으로 차용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제(製)는 적극적인 행위로서의 ‘짓다’,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제(製)는 ‘체화된 마음’에서 일관되게 *Enactment*의 대체가능한 동의어로 사용되는 ‘bringing forth’의 그리스 어원인 ‘poiesis’의 번역어로 해석될 수 있다<sup>30)</sup>. 즉 스스로 철학 전공자였던 석봉래는 *Enaction*의 ‘bringing forth’로서의 의미를 ‘poiesis’와 연관시키고 이를 하이데거와 플라톤에 연결시켰을 수 있다. 게다가 바렐라는 *Autopoiesis*라는 개념의 고안자가 아닌가.

하지만 ‘발제’가 *Enaction*의 철학적, 이론적 함의에 충분히 천착한 후 고안된 신조어라 하더라도, 이 엉뚱한 단어가 한국에서 *Enactivism*의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번역을 위해 신조어를 개발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들여와 별다른 의문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社會)’나 ‘권리(權利)’는 ‘society’와 ‘right’에 대항하는 일본어가 없는 상황에서 신조어로 만들어진 번역어들이었다. 야나부 아키라(2011)는 이런 신조어들이 당시 일본에는 실재하지 않았던 근대적 의미의 ‘사회’와(자기 소유로서의) ‘권리’를 개념의 차원을 넘어 물리적, 제도적 실재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30) *Enaction*의 ‘bringing forth’로서의 의미에 주목한 번역은 석봉래의 것만은 아닌데, ‘체화된 마음’의 중국어 번역본에서는 *Enaction*을 ‘생성(生成)’으로, 일본어 번역본에서는 ‘행위로부터의 산출(行爲からの産出)’이라고 번역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Enaction*이나 *Enactive*가 번역어 없이 외래어 ‘エナクティブ(에나쿠티브)’로 표기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사회’, ‘권리’ 등의 번역어와는 달리 ‘발제’는 세계의 생성으로서의 역할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아마도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한국 인지과학자들의 나태함에 있겠지만, ‘발제發製’라는 단어가 가지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신조어 ‘발제發製’는 기존의 단어 ‘발제發題’와 충돌한다. ‘논제를 정리하여 제기함, 논제를 정리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내놓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발제’는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는 아니지만 학문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어이다. 따라서 ‘발제’라는 말을 하거나 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發題’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 ‘생겨나게 만들다’는 신조어 ‘發製’의 의미에는 애초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Enactivism*에 따르면, 모든 개념은 상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언어적인 상식은 한 언어 공동체의 체화된 역사이다. 따라서 번역어 ‘발제(發製)’는 그 깊은 뜻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어적 환경과 언어 사용자의 구조적 결합의 역사를 거스른 무모한 번역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벤야민은 ‘번역가의 과제’에서 원작의 ‘지속하는 삶’을 재창조하고 모국어의 지평을 넓히려는 (좋은) 번역은 때로 ‘(도착)언어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꽂고 닫고 나가버리는 사태에 직면하기도 한다고 표현했다(벤야민, 1983). 어쩌면 석봉래의 ‘발제發製’가 정확히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 Enaction과 구성(construction)

박충식과 유권종(2004, 2009)이 *Enactivism*을 구성주의(constructivism)로 번역한 이유는 *Enactivism*이 크게는 구성주의 인식론의 한 부류인 만큼 구성주의로 불러도 그들의 핵심 주장을 훼손하지 않으며, 발제주의라는 낯선 번역보다는 학계에서 이미 익숙하게 사용되는 구성주의로 부르는 것이 *Enactivism*의 철학적 함축을 더 충실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nactivism*을 과연 구성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한동안 철학자들 사이의 주된 논쟁거리였고,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렐라 자신이었다. 바렐라는 2001년 포르크센(Poerksen)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을 구성주의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구성주의자가 아니라고 선언한다(Varela & Poerksen, 2006). 이 인터뷰에서 포르크센은 하인츠 폰 피르스



터의 두 경구, 즉 “실재론realism의 중심적인 생각은 ‘세계는 원인이고 경험은 결과’라는 것”이며, “구성주의의 근본 원칙은 ‘경험이 원인이고 세계는 결과’라는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바렐라의 생각을 물어본다. 이어진 바렐라의 대답을 거칠게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그 둘 중 어떤 입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 분명하게 말하는데, 나는 실재론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구성주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 전통적인 구성주의는 나에게 전혀 믿을 만한 인상을 주지 않는다. 그 입장은 인지적인 과정의 한 측면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입장에서) 유기체는 세계에 그 자신의 논리와 그 자신의 모델을 부여한다. 나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은 나에게 신칸트주의적 사고로 퇴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논쟁에서 내 이름을 빼려고 시도해왔으나, 그다지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 인터뷰만으로도 *Enactivism*을 ‘구성주의 constructivism’로, *Enaction*을 ‘구성 construction’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결론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구성주의와 *Enactivism*의 차이를 더 들여다보자.

*Enactivism*과 구성주의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첫째 구성주의가 인식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능동적 구성의 대상은 마음 속의 표상인 반면 *Enactivism*은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표상의 역할을 부인한다. *Enactivism*에서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표상이 아니라 객관과 주관 사이, 즉 상호작용의 영역에 있는 의미의 세계이다. 박충식(2009)은 ‘넓은 의미에서의 구성주의는 지식이란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든 사람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이며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썼다. 이 말은 급진적 구성주의자이며 2차 사이버네틱션의 중요한 인물인 폰 글라스펠트(von Glasersfeld)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보자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든 지식은 개인의 머리 속에 있다. 그리고 사고하는 주체는 그(그녀)의 경험에 기초해서 아는 것을 구성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von Glasersfeld, 1995)” 급진적 구성주의의 이 가정은 앞에서 살펴본 *Enactivism*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주장이다. *Enactivism*에서 지식은 결코 개인의 머리 속에 있지 않으며, 지식은 표상이 아니라 살아온 신체이다.

*Enactivism*과 구성주의를 구분하는 또 다른 주장은 프록스(Jerome Proulx, 2008)에서

발견된다. 그는 구성주의는 지식이 인지자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성된다는 인식론적 주장만을 할 뿐, 외부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의 입장을 취하지만 바렐라의 철학적 관점은 일관되게 존재론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바렐라 등에서 객관과 주관 사이에 있는 의미의 세계는 주관들의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상호주관의 세계가 아니라, 상호객관의 세계(interobjective world)라고 해석한다. 이때 상호객관의 세계는 유기체와 환경, 즉 인식자(knower)와 대상(known)이 함께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영역을 일컫는다. 그는 바렐라(1996)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는데, ‘주관과 객관 사이의 이원론을 제거하는 것, 의미 세계의 공동결정(codetermination)과 생성(bringing forth)을 강조하는 것은 정확히 “Enactive 접근을 어떤 형태의 구성주의와도 구분하게 한다(Varela, 1996, p. 105) 따라서 Enactivism을 ‘구성주의’로, ‘Enaction’을 ‘구성’으로 번역했던 박충식 등의 의도는 Enactivism을 더 큰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려는 시도였으나, 그 저자들의 견해와는 어긋나는 주장이 되고 말았다

#### Enaction과 행위화(行爲化)

Enaction의 또 다른 번역어는 ‘현상학적 마음: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입문’에 등장하는 ‘행위화’이다. 번역어로서 행위화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잠시 ‘현상학적 마음’에 대해 살펴보자. 이 책은 갤러허와 자하비(Gallagher & Zahavi)가 함께 쓰고 2008년에 출간한 ‘The Phenomenological Mind: a introduction to philosophy of mind and cognitive science’를 박인성이 2013년에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은 그 자체로 바렐라 등의 ‘체화된 마음’이 생성해낸(enact) 의미의 세계가 20여년의 세월 동안 인지과학의 지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책의 원전은 두 명의 현상학자들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현상학은 독일 철학자 후설에 의해 창시되어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등의 걸출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유럽철학의 한 조류다. 바렐라 등은 ‘체화된 마음’의 서문에서 “우리가 소개할 학문적 여정은 한 세대도 훨씬 전에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퐁티가 제기한 연구과제의 현대적인 연장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지과학과 인간경험’이라는 부제 또한 정확히 과학과 현상학의 결합을 지향하는 그들의 의도를 명시한 것이다

‘체화된 마음’ 이전에도 인지과학 내에서 인공지능과 ‘이해’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상학적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현상학을 ‘마음에 대한 엄밀학’로서의 인지과학의 주요 방법론으로 포함해야 하며, 인간의 의식경험은 그 자체로 인지과학의 주제라고 천명한 것은 바렐라 등이 처음이었다. 그들의 주장은 곧 유럽의 현상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오늘날 유럽 철학의 전통이 인지과학과 만나 격렬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The Phenomenological Mind’이다. 이 책은 바렐라가 ‘현상학을 자연화’하기 위해 제안한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Vareal, 1997), 바렐라가 창시한 ‘신경현상학’의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흥미로운 또 다른 점은 이 책을 번역한 박인성이 불교철학자라는 사실이다. 바렐라 등은 ‘체화된 마음’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불교철학에 할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양의 철학들이 인간 마음의 경험적 측면을 무시하거나 분석의 대상으로만 다루어온 데 반해 불교철학은 의식경험을 실천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험의 변형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체화된 마음’을 집필한 이유가 인지과학의 철학적 관점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윤리적 요청에 인지과학이 응답하기 위해서라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관심은 인식론적이기 보다는 시종일관 윤리적이었다.

다시 번역의 문제로 돌아와, 박인성은 역자 후기에서 불교의 용어를 서구철학의 용어로 번역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서양철학과 불교철학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단어로 굳어진 개념 이전에 그 언어적 전통과 철학 체계를 이해해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만 번역어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실제 그가 번역에 대해 얼마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지는 거의 대부분의 개념어에 영어 표기를 병기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의 이런 태도의 결과가 *Enaction*을 원어의 일상적 의미와 형태소까지 그대로 옮긴 ‘행위화’이다. 그는 체화 또는 신체화에서와 마찬가지로 en-, em-을 화(化)로 번역했다. 번역에서 이렇게 원문의 형태까지 가능한 고스란히 보존하려는 태도를 직역주의라고 한다.

번역의 본질을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에 전제된 의미적 대응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볼 것인지, 출발어조차도 표현하지 못하는 제 3의 언어적 본질을 도착어에 되살리고 생동하게 하는 데 둘 것인지, 또 비록 도착어에 낯선 표현이라 하더라도

출발어의 형식적 요소까지를 포함해 출발어의 원형을 가능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출발어의 의미에 집중하고 이 의미가 도착어의 개념 체계 안에 무리 없이 안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인지는 번역학의 오랜 고민 중의 하나이다(윤성우와 이향, 2013). ‘발제’와 ‘구성’이 의미적 대응에 충실하려는 노력이었다면 ‘행위화’는 언어의 형식적 측면까지도 유지하려는 노력이고 또한 ‘발제’와 ‘행위화’가 한국어에 생경하더라도 원어의 의미나 형식을 가능한 유지하려는 시도라면 ‘구성’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개념 체계 안으로 개념을 포섭하려는 시도이다 이 중 어떤 태도가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이 있을 수 없고 각각 나름의 장점을 가진다.

벤야민의 번역론에 힘입어 번역에서 ‘직역주의’가 이제 비난의 대상만은 아니다. 하지만 박인성의 번역어 ‘행위화’가 살아남는 번역어가 되리라는 확신을 갖기는 어려운데, 그의 책에서도 등장하는 ‘행위화적 접근’이나 ‘행위화주의’는 단지 낯선 것을 떠나, ‘-화(化)’와 ‘-적(的)’ 또는 ‘-주의(主義)’의 접미사를 겹쳐서 사용하는 것이 비문법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 ‘-화’를 유지하려면, ‘행위화 접근’ 또는 ‘행위화론’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화’라는 접미어가 꼭 붙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위’도 고려해볼 수 있는 번역어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Enaction’은 원래 의미에서 ‘action’이고 *Enactivism*은 인지의 본질을 주관의 인식이 아니라 유기체의 행위로 보는 관점인 만큼 ‘행위’라는 단순한 번역이 오히려 ‘Enaction’의 의미를 소박하게 잘 전달하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물론 ‘행위주의’가 ‘행동주의’ 또는 ‘행태주의’와 혼동될 위험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인지과학적 관심(예, *Consciousness in Action*, Hurley, 1998; *Dynamics in Action*, Juarrero, 1999; ‘Action in Perception’, Noe, 2006)과 인식 주체(*cogito*, *subject*, 또는 *knower*)가 아닌 행위자(*agent*)로서의 주체에 대한 관심들을 고려할 때, *Enactivism*을 ‘행위’ 철학의 반열에 올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다.

Enaction과 실행(實行), 수행(遂行/修行) 또는 작동(作動)

지금까지 *Enaction*의 출판된 번역어들을 살펴보았다. 인쇄물을 통해 출판된 번역어는 출판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권력과 관성을 지닌다. 하지만 *Enactivism*의 여러

의미들을 천착하는 현재의 맥락에서 *Enaction*의 번역어들을 좀 더 다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가능한 번역어들 중 실행(實行)과 수행(遂行/修行), 작동(作動)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실행, 수행, 작동. 이 세 단어는 모두 ‘make to act out’이라는 ‘enact’의 일상적 의미에 대응되고, ‘행위화’와 마찬가지로 *Enaction*의 직역에 해당하는 번역어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 철학적 함축과 확장가능성에서 각각의 장점을 지닌다.

먼저 실행(實行)에 대해 살펴보자. ‘실제로 행함’이라는 뜻을 지닌 실행은 영어로 *Enaction* 뿐 아니라 ‘actualization’에도 대응되는데, ‘actualization’은 행위의 창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철학들에서 종종 사용되는 개념이다. 바렐라 등의 *Enactivism*은 주객 이원론을 반대하고 순환성의 근본조건을 자각한 하늘 아래 유일한 철학적·이론적 관점은 아니다. 여기에는 후기구조주의를 비롯한 유럽철학의 여러 조류들과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이 있으며,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김슨의 생태주의 심리학이 있다. 철학자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듀이, 화이트헤드, 베르그손이 2차 사이버네틱스가 태동하기 이미 한 세대 전에 인간 존재와 인식의 이중성과 순환성을 파악하고 있었고, 김슨은 듀이의 실용주의에 근거하여 독창적인 지각행위이론과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철학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actualization’이다<sup>31)</sup>.

‘actualization’은 김슨주의에서 ‘유기체의 행위가 환경에 있는 정보로서의 어포던스(Affordance 행위가능성)를 현실화한다’는 맥락에서도 사용된다(Turvey, 1992). 어포던스는 유기체와 환경이 오랜 공진화(co-evolution) 과정에서 공동으로 창출한 체화된 의미이며, 이 체화된 의미로서의 정보는 유기체가 미처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환경의 몫으로 존재한다. 환경의 몫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보가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공동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언제나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무는 다람쥐에게 ‘올라갈 수 있는 climb-able’이라는 어포던스를 제공하지만 만약 숲에서 다람쥐가 멸종해버렸다면 어포던스는 결코 실행될(actualized) 수 없다. 바렐라 등은 어포던스와 불변소가 유기체의 지각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김슨의 주장에 반대하고, 바로 이 점이 자

31) 앞서 인용한 메를로-퐁티의 ‘행동의 구조’ 영역본에서도 *Enaction*의 의미로 ‘actualization’이 사용되었다.

신들의 *Enactivism*과 깃슨주의를 구분하는 철학적 갈림길이라고 말한다<sup>32)</sup>.

‘actualization’이 사용되는 또 다른 철학적 맥락은 ‘잠재적인 것의 현실화’라는 의미로 화이트헤드, 들뢰즈, 데 라다 등에서 등장한다. *Enactivism*은 이 철학적·이론적 입장들과는 여러 면에서 대비되지만, ‘실행(實行)’은 *Enaction*과 ‘actualization’의 두 개념 사이를 연결하고 확장해서, 또 다른 통찰들을 제시하는 장점을 지닌다.

*Enaction*의 번역어로 고려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는 ‘수행(遂行/修行)’이다. 바렐라 등의 ‘체화된 마음’에서 ‘enact’가 사용되어야 하는 맥락에서 수행에 해당 하는 단어인 ‘perform’이나 ‘practice’ ‘training’이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practice’와 ‘training’을 붙고 명상수행의 맥락에서 ‘수양 cultivation’과 함께 사용하는데, 이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의 관심이 인식론적이기 보다는 윤리적인 사실과 관련이 있다. 실제 ‘*Enaction*’은 세계를 관찰자하고 설명하는 인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의미의 세계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능력이고 이 능력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본성을 지닌다. *Enaction*의 실천적, 윤리적 측면은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 제기된 관찰자 행위자 또는 과학자/공학자 문제에 대한 *Enactivism*의 해법이기도 하다.

본질적으로 행위자이면서 또한 관찰자인 과학자(인간)는 근본적 순환성의 조건 때문에 반성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 반성성에 대한 메를로퐁티나 깃슨의 해법이 비반성적 지각을 강조하고 과학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이었다면 구성주의의 해법은 반성성의 회로가 무한회귀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의 두뇌 안에 닫힌 회로를 만들어 외부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반면 *Enactivism*의 해법은 반성성의 순환이 내부의 난장이 인간-homunculus-을 향해 무한히 계속되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세계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그 접점에 놓이는 것이 바로 신체의 이중성이다. 경험하는 동시에 경험되는 것 즉 주체인 동시에 객관이며, 만지는 것인 동시에 만져지는 것으로서의 반성적인 신체는 자신의 경험을 *Enact*하고 자신을 새로 만드는(reembodying) 윤리적 실천의 주체이며 대상이며 장소이다.

이 생각을 바렐라 등의 입을 빌어 말하면, “(이는) 추상적이고 신체와 분리된 활동으로서의 반성에서 체화된집중된 mindful), 열려진 반성으로의 전환이다. 체화되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반성을 의미한다.” 즉 데카르트의 반성이 몸

32) 이 쟁점은 체화된 인지의 여러 관점들이 수렴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더 큰 패러다임으로 확장될 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으로부터 분리되어 더 높은 추상성으로 치닫는 반성이었다면 불교 명상수행에서의 반성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반성적 층위에서 조망하면서도 다시 구체성을 향해 돌아가는 반성이라는 것이다. 이런 반성은 세계와 마음을 재체화(reembodying)하고, 이 순환을 통해 몸과 마음은 통일된 하나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깨어있고 (mindful)이고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반성적인 신체는 세계와 자아의 경계가 형성되는 장이며, 세계와 자아가 서로를 깨우는 열린 문이며, 세계와 자아가 더불어 성장하는 공간이다. 이 열린 순환에서 반성적인 수행(遂行)은 바로 자신의 경험과 행동을 변형하고 확장하는 수행(修行)이 된다. 따라서 수행(遂行)과 수행(修行)은 지각과 행위가 그러한 것처럼 근본적 순환의 관계에 있으며 피비우스의 띠처럼 꼬여 있다. 이 경우, 수행(遂行)/수행(修行)은 발제(發製)/발제(發題)와는 달리 그 자체로도 의도된 번역이며, 행위의 본유적인 이중성을 드러내는(Hervorbringen) 단어이다.

*Enaction*을 ‘수행’으로 *Enactivism*을 ‘수행주의’로 번역하는 것은 *Enactivism*이 담고 있는 근본적 순환성과 행위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 적절한 번역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과학전통이 불교의 실천적 철학전통과 만나 현대 사회의 윤리적 요청에 응답하기를 염원했던 바렐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번역일 지도 모른다<sup>33)</sup>.

이 외에 작동(作動)을 고려하는 것은 ‘작동’이 복잡한 철학적 논란을 피해 중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며, 또 브루너가 사용했던 의미의 ‘enactive’ 즉 신체 동작이라는 의미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브루너가 사용한 맥락을 굳이 되살려 검토하는 이유는 *Enactivism*이 철학적 맥락에서 다루어질 때와 심리학적 맥락에서 다루어질 때 사뭇 다른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Enactivism*의 영향으로 촉발된 ‘시각적 의식 경험에 대한 enactive 접근’(O’Regan & Noë, 2001)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이 이론은 지각경험을 안구와 같은 신체 말단의 무의식적이고 부단한 동작 또는 작동이 만들어낸 감각운동적 회로의 기능이라고 설명한다.

지각경험이 감각 수용기에 주어진 자극의 총합이나 계산이 아니라 감각 수용기와 근육 효과기(effector) 사이의 반복적인 순환회로와 관련된다는 주장은 말 지각의

33) 필자는 개인적으로 수행(遂行/修行)이 바렐라 등이 *Enactivism*에서 의도했던 바 즉 영어 체계의 테두리에 갇혀 스스로도 잘 드러낼 수 없었던 그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심리학 연구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리버만(Alvin Liberman)의 ‘말지각의 근육 동작이론 motor theory of speech perception’(1957; 1967)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철학의 맥락이 아닌 심리학의 맥락에서는 ‘Enaction’을 동작(動作)이나 작동(作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나가며: Enactivism에 길을 내기(laying down a path in walking)

지금까지 *Enactivism*의 역사와 바렐라 등의 ‘체화된 마음’에서 제시된 *Enaction*의 의미를 살펴보고, *Enaction*의 한국어 번역들과 그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발제’, ‘구성’, ‘행위화’, ‘실행’, ‘수행’, ‘작동’ 중 *Enactivism*의 주창자인 바렐라 자신에 의해 부정된 ‘구성’을 제외하면, 이들 중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인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은 없다. 모두 충분히 타당하고 또 충분히 난감하다. 하지만 어떤 번역어가 선택되고 살아남을 지에 대한 대강의 안내선은 필요할 것이다.

야나부 아키라(2011)는 서양의 ‘liberty’가 초기에 제안된 ‘자주’, ‘자재’, ‘불기’, ‘관홍’ 등의 번역어 대신 ‘자유’로 정착된 것은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지적하는데, 일본어 ‘자유’에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 두지 않고 제 멋대로’라는 부정적인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liberty’에는 개인의 ‘존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강조된다. 이런 뉘앙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번역어로 정착된 것을 보면, 반드시 적절한 번역어가 살아남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번역어다운 말이 정착하는데, 어딘지 이해하기 힘들고 어긋난 상태가 모국어에 완전히 섞여버리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것이다. 번역어의 그 어딘지 낯설고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위화감이 오히려 “번역어를 숙고하고 깊이 음미하며, 나아가 새로운 어떤 것이 생겨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Enaction*의 번역어들에 대해 독자들이 느끼는 생소함과 거부감은 번역어의 본질적인 속성이라, 생소함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번역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번역어가 좋은 번역어인지를 따지는 일은 번역 행위 이전에 번역되어야 할 원래의 의미가 있고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가장 좋은



번역어도 이미 정해져 있어 어딘가에서 재능 있는 번역가가 나타나 자신을 발견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깔려 있다. 이러한 태도를 *Enactivism*의 주장에 근거해 번역어의 실재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Enactivism*에서 ‘의미’는 인식자의 머리 속이나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작용의 영역에서 발생하며,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규정과 공동결정을 통해 지속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의미이다. 따라서 좋은 번역은 정확한 번역도 매끄러운 번역도 아니며, 출발어와 도착어, 번역자와 독자 사이에서 ‘원어’를 뛰어넘어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번역이다.

양일모(2011)는 “사전의 편찬은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등가성을 전제로 하지만 도착어는 언제나 하나가 아니라 복수이며 그 속에는 번역하는 주체의 의도가 스며있다. 나아가 번역어는 번역되는 지역 안에서 출발어의 경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실천되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간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과 담론 속에서 번역어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탈릭 강 조는 본 논문의 저자)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 선다면, *Enaction*의 번역어를 대하는 태도도 분명해진다. 첫째 이미 출간된 번역어뿐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생성하는 여러 번역어들을 고심하고 제안해보는 것이며, 둘째 *Enaction*의 적절한 번역어를 모색하는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인지과학적 번역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수용하고 실천할 공동의 제도(*institution as social embodiment*)를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인지과학의 번역어들이 다른 학문 영역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학제간 논의와 실천을 제도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담론의 활성화가 경험적 연구를 추동하고 발전시키는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단어가 속한 언어 전체를 사용하는 일’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은 *Enaction*의 번역어를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 *Enactivism*이 한국의 학문 사회에 정착하고 새로운 학문적 현실을 만들어가는 길 내기(*laying down a path in walking*)의 실천이 될 것이다. 이 글 전반에서 틈틈이 강조했듯이 *Enactivism*이 나아갈 길은 이미 주어진 길이 아니라 오직 인지과학자들이 걸어갈 때에만 열리는 길이다. 이 논문이 *Enactivism*의 길 내기에 나비의 사소한 날개 짓의 의미라도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향선 (2000). 「하이데거의 기술」, 대동철학, 11집, 63-92.
- 마뚜라나, 바렐라 (2007). 『삶의 나무』, 최호영 역. 갈무리.
- 바렐라 (2009). 『윤리적 노하우』, 유권중, 박충식 편역. 갈무리.
- 바렐라, 톰슨, 로쉬 (1997). 『인지과학의 철학적 이해』, 석봉래 역, 옥토. (원전 1991).
- 바렐라, 톰슨, 로쉬 (2013). 『몸의 인지과학』, 석봉래 역, 이인식 해제, 김영사. (원전 1991).
- 박충식 (2004). 「구성적 인공지능」, 인지과학, 제 15권 4호, pp. 61-66.
- 박충식 (2009). 「바렐라의 ‘윤리적 노하우」, 『윤리적 노하우』(역자 해제), 갈무리.
- 박충식, 유권중 (2004). 「새로운 도덕 심성 모델: 퇴계학, 구성주의, 인공지능」, 한국철학자대회 논문집.
- 베르그손 (2005). 『물질과 기억』, 박종원 역, 아카넷. (원전 1896).
- 벤야민 (1983).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환 편역, 민음사.
- 야나부 아키라 (2011). 『번역어의 성립』, 김옥희 역, 마음산책. (원전 1982).
- 양일모 (2011). 「번역문화로 본 일본의 근대」, 『번역어의 성립』 해설, 마음산책.
- 윤성우, 이향 (2013). 『번역학과 번역철학』, HUEBOOKS.
- 이정모 (2009). 『인지과학: 학문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폴라니 (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홍기빈 역, 길. (원전 1909).
- Bateson, G. (1972). Steps to an ecology of mind, Ballantine Books.
- Ben-Zee've, A. (1995). "Explaining Cognitive Progress," In R. F. Goodman and W. R. Fisher (Eds.), Rethinking Knowledge: Reflections across the Disciplines, Albany: SUNY, 41-56.
- Bishop J. M. and Nasuto S. J. (2005) "Second-order cybernetics and enactive perception". Kybernetes 34(9/10): 1309-1320.
- Bruner, J. S. (1966).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Cambridge, Mass.: Belkapp Press

- Bruner, J. S. (1991). "The Narrative Construction of Reality". *Critical Inquiry*, 18:1, 1-21.
- Clark, A., and Toribio, J. (1994). "Doing without representing". *Synthese* 101, 401-31.
- Davis, J. I., and Markman, A. (2012). "Embodied Cognition as a Practical Paradigm: Introduction to the Topic, The Future of Embodied Cognition". *Topics in Cognitive Science*, 4(4), 685-691.
- De Jaegher, H., and Di Paolo, E. A. (2007). "Participatory sense-making: An enactive approach to social cognition". *Phenomenology and the Cognitive Sciences*, 6(4), 485-507.
- Di Paolo E. and Thompson E. (2014). "The Enactive Approach," in Lawrence Shapiro,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Embodied Cognition*. Routledge Press.
- Di Paolo, E. A., Rohde, M. and De Jaegher, H., (2010). "Horizons for the Enactive Mind: Values, Social Interaction, and Play." In J. Stewart, O. Gapenne and E. A. Di Paolo (eds), *Enaction: Towards a New Paradigm for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A: MIT Press, pp.33-87.
- Fodor, J. A. (1975). *The Language of Though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Gibson, J. J. (1977).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laserfeld, E. von. (1995). *Radical Constructivism: A Way of Knowing and Learning*. London and Washington: Falmer Press.
- Hayles, N. K. (1999).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rley, S. (1998). *Consciousness in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urley, S. (2008) "The Shared Circuits Model: How Control, Mirroring and Simulation Can Enable Imitation, Deliberation, and Mindreading",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1, 1 - 58.
- Hutchins, E. (1995) *Cognition in the Wild*.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USA.
- Johnson, M. (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uarero, A. (1999). *Dynamics in Action*, Cambridge, MA: MIT Press.
- Lakoff, G. and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and Johnson, M. (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 Lieberman, A. M., Cooper, F. S., Shankweiler, D. P., and Studdert-Kennedy, M. (1967). "Perception of the speech code". *Psychological review* 74(6): 431-461.
- Lieberman, A. M., Harris, K. S., Hoffman, H. S., and Griffith, B. C. (1957). "The discrimination of speech sounds within and across phoneme bounda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54(5): 358-368.
- Luhman, N. (1995). *Social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utz A. and Thompson E. (2003), "Neurophenomenology: Integrating Subjective Experience and Brain Dynamics in the Neuroscience of Consciousness,"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10: 31-52.
- Maturana H. and Varela, F. (1980) *Autopoiesis and cognition: The realization of the living*.
- Maturana, H. and Varela, F. (1992). *The Tree of Knowledge: The biological roots of human understanding*. (revised edition) Boston & London: Shamabala.
- McMullin, B. and Varela, F. (1997). *Rediscovering computational autopoiesis*. Santa Fe Institute.
- Merleau-Ponty, M. (196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Colin Smith.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first published in French in 1945).
- Merleau-Ponty, M. (1963) *The Structure of Behavior*, trans. A. Fisher. Pittsburgh, PA: Dusequesne University Press. (first published in French in 1942).
- Noë, A. (2004). *Action in Perception*. Cambridge, MA: MIT Press.
- O'Regan, K. and A. Noë. (2001) "A Sensorimotor Account of Vision and Visual Consciousnes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4: 939-1031.
- Petitot, J., Varela, F., Pachoud, B. and Roy, J. M. (1999). *Naturalizing Phenomenology: Contemporary Issues in Phenomenology and Cognitive Scie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Piaget, J. (1936). *Origins of intelligence in the chi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roulx, J. (2008) "Some Differences between Maturana and Varela's Theory of Cognition and Constructivism", *Complic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lexity and Education*, 5(1): 11-26.
- Reid, D. A. (2011). "Enaction: An Incomplete Paradigm for Consciousness Science", Review of "Enaction: Toward a New Paradigm for Cognitive Science" Edited by John Stewart, Olivier Gapenne and Ezequiel A. Di Paolo. *Constructivist Foundations* 7(1): 81-83.
- Rohde, M. (2010). *Enaction, Embodiment, Evolutionary Robotics: Simulation Models for a Post-Cognitivist Science of Mind*. Atlantis Press.
- Rorty, R. (1979)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nnon, E. C. (1948).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Bell System Technical Journal*, Vol. 27, pp.379-423, 623-656.
- Shapiro, L. (2011) *Embodied Cognition*. New York: Routledge.
- Thompson E. and Stapleton M. (2009). "Making Sense of Sense-Making: Reflections on Enactive and Extended Mind Theories," *Topoi* 28: 23-30.
- Thompson E. and Varela F. J. (2001). "Radical Embodiment: Neural Dynamics and Consciousnes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5(10): 418-425.
- Turvey, M. T. (1992). "Affordances and prospective control: An outline of the ontology", *Ecological Psychology*, 4(3): 173-187.
- Uexküll, J. von (1934). "A stroll through the worlds of animals and men", In C. H. Schiller (Ed.), *Instinctive behavior: The development of modern concept*: 5-80.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Varela F. (1979). *Principles of Biological Autonomy*. New York: Elsevier /North-Holland.
- Varela, F. (1987). "Laying down a path in walking", In W. Thompson (Ed.), *Gaia: A way of knowing*. (pp.48-64). Hudson, NY: Lindisfarne Press.
- Varela, F. (1997). "The Naturalization of Phenomenology as the Transcendence of Nature: searching for generative mutual constraints", *Alter: Revue de Phénoménologie* 5:355-385.

- Varela, F. (1999). *Ethical Know-How*, Stanford University Press.
- Varela, F. and Poerken, B. (2006). "Truth is what works: Francisco J. Varela on cognitive science, buddhism, the inseparability of subject and object, and the exaggerations of constructivism-a conversation",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40(1): 35-53.
- Varela, F. and Shear, J. (1999). *The View from Within: First-Person Methodologies*, Imprint Academic, London.
- Varela, F. J. (1996). "The Early Days of Autopoiesis: Heinz and Chile", *Systems Research* 13(3), 407-416.
- Varela, F., Thompson, E., and Rosch, E. (1991).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A: MIT Press.
- Wittgenstein, L. (1958).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G. E. M. Anscombe, Trans.). Oxford: Basil Blackwell.

1차원고접수 : 2014. 12. 09  
1차심사완료 : 2014. 12. 14  
최종게재확정 : 2014. 12. 15

(Abstract)

## Enacting enactivism: Concerning the translation problem

Moon-Jung Bae

Woosuk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Enactivism* is the most influential and groundbreaking approach among the various theories of embodied cognition. Despite of its impact and relatively long history, however, *Enactivism* is still considered as a new and unfamiliar theory i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Even though this might be partly due to the genuine depth and dramatic approach of *Enactivism*, it is also due to the disagreement of Korean translation of *Enactivism*. This paper reviews the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Enactivism* in the context of history and conceptual terrain, and discusses how the various translated Korean words of ‘*Enaction*’ - ‘발제(發製)’ ‘구성(構成)’, or ‘행위화(行爲化)’- embraced and interpreted the essence of philosophy and concept of ‘*Enaction*’ and ‘*Enactivism*’. Furthermore, we offer several alternatives Korean translations of ‘*Enaction*’: ‘실행(實行)’, 수행(遂行/修行), or 작동(作動). Through this discussion, we hope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Korean researchers and philosophers to direct their attention to *Enactivism* properly and to make a common ground for further development of *Enactivism* in Korea.

*Key words* : *Enactivism, Enaction, Embodied Cognition, Varela, Korean translations of Enaction*